

생명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3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이때에 우리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양정섭 목사

(사)한국기독교교회교단 협의회 대표회장 평안교회 담임

본문 이사야 60장 1-3절에는 유대백성들에게 소망과 환희를 주는 그러한 단어들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 일어나라. 2) 빛을 발하라. 3)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이며 환한 말인지 모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면 그것은 병이 나았다는 표시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일어나면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면 다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어두움이 물러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두움은 죄악입니다. 환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죽음입니다. 억압입니다. 그러나 빛은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평화입니다. 생명을 나타냅니다. 영생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말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는 뜻입니다.

1.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려 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 장사한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스겔 골짜기의骸骨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제와 같은 죽은 신앙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2.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든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평의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3.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잠자는 영과 육과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리고 하는 니느웨로는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 선원들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침상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배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영혼의 잠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이때에 우리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결언 오순절 디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잃은 열심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살리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

CTS기독교TV 최현탁 신임 사장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지난 3월 10일(목) 제109차 이사회를 열고, 최현탁 장로(목동제일교회)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 결의했다. 1995년 CTS에 입사한 최현탁 사장은 공채 출신 최초로 사장에 올랐다. 최현탁 사장은 1995년 CTS 공채 1기로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쳐 제작 부문 차장사 ‘CTS N’ 대표이사 겸 사장을 역임했다.

게르성전 건축, 몽골기독교총연



몽골기독교총연합 선교회(법인회장 김동근 장로, 이하 몽기총)가 ‘연약과 동행’ 이사장 김요셉 목사(과 협)를 초청해 몽골 톨하이막 몽골모드 마을에 게르볼 크리스티안교회 게르성전을 건축했다. 이번 게르성전은 울란바트르에서 1,700km 떨어진 울스아이막에 서몽기총이 주부·제작·운반한 것이다.

기아대책 이사장에 지형은 목사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진구 기아대책’ 회장 유원식은 지난 3월 23일(수) 총회에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기아대책은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본부에서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코로나19 전환기에 기아대책이 창의적으로 사역을 열어가길 것을 다짐했다.

한동대, 신용보증기금 MOU 체결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지난 3월 22일(화) 한동대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창업 기업 추천과 금융·비금융 지원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역사는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한다

역사는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한다. 큰 권력이나 큰 힘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게 된다.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의 임기도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다. 그에 대한 평가는 제20대 대선으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설왕설래가 겹쳐지고 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과도한 해외여행과 또 하나는 호사롭게 입었던 옷값이 국민의 세금에서 부당하게 지불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너무 따지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다.

이런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도 그 부인도 공인이다. 그래서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족생활비는 월급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천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난 2018년 시민단체로부터 불거져 나왔는데도 청와대 쪽에서는 미온적인 모습이었다. 심지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낸 의견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값 공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는데도 청와대는 항소를 해서 의견비용 공개를 기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29일 입장을 발표했는데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다’고 하여, 정부 예산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별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상반된 내용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사비로 부담했다’는 말도 한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부분 참여했는데 28번에 걸쳐 45개 나라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세계적인 관광지 탐방이 들어간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юн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베드로성당,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핑크스, 노르웨이의 피오르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노르웨이를 방문할 당시 전 김

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로 K팝 공연을 관람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관람했고, 당시 헝가리에서는 유류선이 침몰해 한국인을 포함하여 사망자 수백명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짧은 순방 시간을 쪼개서 유명한 미술관까지 관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은 해외에 나가면 공관의 부인들과 가족들을 만나 격려하고 해외 임양아들을 만나거나 그 나라의 복지 시설을 둘러보는 등의 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금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청와대도 뻔뻔하고 당당하다면 전직에 소상하게 내막을 밝히면 되는데, 처음에는 ‘국가 기밀’ 운운하면서 국민들

의 의견을 깔아뭉개려고 한 것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도 국민이며, 얼마이든지간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다면, 그것이 정당하고 댕뻑해야 한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1년에 평균 5-6차례씩 해외 순방길에서 관광을 즐기는 모습, 특별비에서 옷값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물러났을 때, 역사의 심판에서, 국민들의 평가에서 호평을 받는 것을 보고 싶다. 이제 국민들도 물러나는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흠집을 찾기보다 예우를 해 주고, 이 문제로 국민들 간에도 분열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3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2.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2. 9. 1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2. 9. 29(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2.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3. 2. 6(월)~7(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총 회장 목사 신재영 고시 위원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명준